

전 남

남의집 서방님은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집 낭군님은 논두렁만 탄다네
아리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진도아리랑 가사 777절 채록

박병훈 전 진도문화원장... 이평기씨가 집대성

"가노라 간다 내가 돌아간다/ 정든 땅 따라서 내가 돌아간다/ 눈바람 속에도 동백은 피는데/ 우리집 도령은 언제나 필까/ 임 떠난 밤에는 사친편만 남고/ 연락선 떠난 데 물결만 남네/ 남의 집 서방님은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집 낭군님은 논두렁만 탄다... 아리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가사집은 발품을 팔아 옛 어른들의 소리를 차곡차곡 채록한 박병훈 전 진도문화원장의 자료를 이평기 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가 집대성한 것이다. 100쪽 분량의 가사집에는 진도 주민이 고된 농사일과 바닷일을 하면서 불렀던 진도 아리랑 777절 가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진도의 신명과 한(恨)이 어려웠던 '진도아리랑 타령' 전체 가사집이 진도의 원로 향토사학자와 문화관광해설가의 노력으로 세상에 나왔다.

진도아리랑 타령은 서민적이고 가락이 특이하며 타 아리랑 후렴과 달리 색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랫말 역시 진솔한 남녀의 사랑과

세태를 풍자하는 시대각각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진도 아리랑은 무수한 메김소리와 애절한 사연, 희로애락이 담겨 있지만, 입으로만 전해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박 전 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인 진도지역의 문화를 담은 진도 아리랑을 기록해 하루빨리 남겨야 한다는 절박함에 수년 동안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노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채록해 정리했다.

민속학자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는 연구논문을 통해 "진도아리랑은 가락이 구성되고 장엄해서 소리

에 힘이 든다"며 "진도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밤에는 사람과 길가는 사람이 노래로 화답하는 일도 있다. 창자(唱者)의 즉흥에 의해서 들려지는 진도아리랑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이평기 진도문화관광해설가는 "이번 가사집이 진도 아리랑을 고찰하고 연구하는 기초 자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필요한 학술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필요로 하면 보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병훈 전 원장은 "진도는 '남도 민속문화의 보고(寶庫)'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진도 아리랑 타령' 가사집이 진도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도 아리랑을 소개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경기자 hypark@

교통사망사고가 고령화 때문이라고...

나주경찰 '전국 1위' 불명에 '찜빔예산' 등에 떠넘겨 빈축

나주경찰서가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에 원인을 주민들의 고령화와 지자체의 '찜빔' 예산지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각 도로의 간이분리대 등 도로안전 시설과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나주경찰청은 이 같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교통사고 918건(부상 965명·사망 29명)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사망자 8명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홍보·단속 순이라고 하며, 홍보와 단속 등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나주시의 인색한 예산지원이 교통사고 증가에 한 몫 한다는 입장이다. 나주경찰청은 "지난해 나주시에서 5억1000만원의 교통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전남 21개 경찰서 가운데 예산확보율이 14위에 그치고 있다"며

"올 가을 추경에 3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며 나주시에 요청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설비와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들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 김모(42·영광동) 씨는 "나주 시민만이 고령화되고 있는나"며 "교통사망사고 1위 불명예를 안은 것은 경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ung@



쓰러진 벼 세우기 '구슬땀' 장성군청 공무원들이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현장을 찾아 벼세우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는 강한 바람에 벼가 쓰러진 도내 피해면적을 신안 105ha 등 499.4ha로 집계했다. <장성군 제공>

완도, 추석 앞두고 특산품 관촉 총력

21일까지 직거래장터 개설·온라인 판매

추석명절을 앞두고 완도군이 직거래장터 개설과 온라인 판매 등 지역 특산품 관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직거래 장터를 개설, 서울·광주·대구·부산·대전·인천·제주도 등 전국 대도시 백화점과 마트 등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완도 특산품인 전복·미역·다시마·갈·말차·쌀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관촉 서비스에 발 벗고 나섰다.

직거래 장터는 서울 강동구·강남구·노원구와 경기도 안산시, 인천 연수구,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

광역시 등 물론 서울경찰청·서울도사청도 청담역·광주지하철공사 상무역·경기도 안산시 등에 개설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온라인 브랜드마케팅 관촉활동을 전개, 전남도와 완도군 공직자를 주축으로 해 전국 각 기관단체와 대기업·향우 등을 대상으로 청정해역 완도특산품 판매에 나섰다.

특히 김홍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간부와 직원까지 관촉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지역 생산자와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 청년 100인포럼' 10일 창립총회

목포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 모임이 출범한다.

목포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목포 청년 100인포럼'은 오는 10일 창립총회를 갖는다.

초대 공동대표인 강문정 목포 미르

치과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등을 초청해 현안 사업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꾸준히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관광 담양 '10亭子' 선정한다

담양군이 '담양 10미' 선정 계획에 이어 '성산별곡'과 '사미인곡' 등 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가사문학의 산실이었던 정자들을 대상으로 '담양 10亭子'를 선정한다. 담양군은 '누정의 고장', '원림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담양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대표 정자 10개소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성지(秋成誌)와 조선환어승람(朝鮮還興勝覽) 등 여러 문헌에 따르면 담양에는 70여 개의 정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붕괴되고 없어져 현재는 29개의 정자가 현존한다. 군은 1945년 이전 건립해 현존

하는 29개소를 대상으로 정자 자체의 역사성과 함께 주변 경관까지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정자 15개소를 1차 선정하고 이들 정자를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학적 가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0개 정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담양 지역에는 소재원(사헌)과 식영정·송강정·면양정 등 9개소가 문화재로, 남곡루와 문일정 등 4개소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건물(임대용,투자용)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인생 열쇠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
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
하시는 분

아담공인중개사
영암 삼호(F1경기장 부근 간척지)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대불대학 부근 간척지 123,000㎡, 3.3㎡당 60,000원.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매월동 준 공업지역
광성강 도로변 대지 매매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주유소 광산구 양 491평 용지 5억 교환가능 10억
광명동 상가주택 대지 68 평형 19억 지하와 2층은 공실이고 전체 300만원 월 1200원 대출 2억 9천 매도 580만원